

# 1 편



I. 사용설명서	06
II. 궁극기	13
III. 이해	27
IV. 이정표	33





# I. 사용설명서

---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책 저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짚막한 사용설명서를 하나 제작했습니다.

제작 의도, 구성, 주의사항 등 저자로서 원하는 교재의 활용방안 정도를 실어놨어요.

마지막 부분엔 개인적으로 감사함을 표하고픈 몇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적어놨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 봐주세요.

---

## 제작 의도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제 군 입대 이전에 일어난 일임을 고려하면 지금으로부터 꽤나 오래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과 다르게 그때 대학생 국어 과외를 하던 시기라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학생들을 수업하는 게 주 업무였습니다.

그날도 어느 때와 같이 시험장에서의 풀이를 한 학생에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도 반추위 지문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제게 묻더라고요.

K: 근데 독서 지문 읽을 때, **그읽그풀**<sup>1</sup>이 뭐고 **이걸 잘하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의 저는 그읽그풀이 무슨 느낌인지 설명해주고 싶었으나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허둥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능력이 부족하니 답변을 정제해 오겠다고 며칠만 시간을 달라했죠.

---

1. '그냥 읽고 그냥 풀기'의 줄임말로 이유는 모르겠지만, 수험판에서 유명한 말이다.

그러나 며칠 동안 그에 대해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고민은 그 친구의 입시가 끝나고 그가 저보다 좋은 학교에 진학할 때까지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로부터 또 몇 년 후, 제가 군에 입대한 후 소대원들과 시답잖은 소리를 하며 낄낄대다가 해결됐습니다.

저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 당시 소대 간부님 성대모사를 하던 중에 ‘읽는 게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희미해질까 하여 기록해둔 뒤 이렇게 활자로 출판하게 됐습니다.

사실 어떻게 만들었고, 무슨 과정을 거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책이 ‘그읽그플이 뭐고 어떻게 잘하는지’에 대한 200페이지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

## 콘텐츠

### • QNA

아무래도 이 책의 목표가 어느 글이든 적용 가능한 도구를 설명하다 보니 교재를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럴 때를 위해, QNA 창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입니다.



<https://cafe.naver.com/rlackdtjqeoajfl>

여기 오셔서 교재 구매자 인증 후, [QNA게시판] - [수능적접근]에서 자유롭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어서, 웬만하면 제가 직접 달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오르비에 있는 판매 페이지에 질문을 하셔도 좋고, 카페에서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 • 강의 영상

책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훈련' 파트에는 별다른 해설지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에는 해설지를 만들었는데, 페이지 수가 900페이지를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판매가 불가능할 듯하여, 해설지는 과감히 폐기하고 녹화 강의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의 영상은 QNA와 마찬가지로 교재 구매자 인증 후, [강의] - [수능적접근]에서 자유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칼럼

교재 구매자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칼럼을 업로드하지만, 일부 칼럼은 오르비에 업로드하기엔 부적절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설명할 때, 쉽고 오류를 줄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이런 전략이 전달의 측면에서도 직관적이고 이해가 잘될 뿐 아니라 신입 저자로서도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에 좋아 보이지만 반대로 수위, 도덕성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게 되어 일부 학생들이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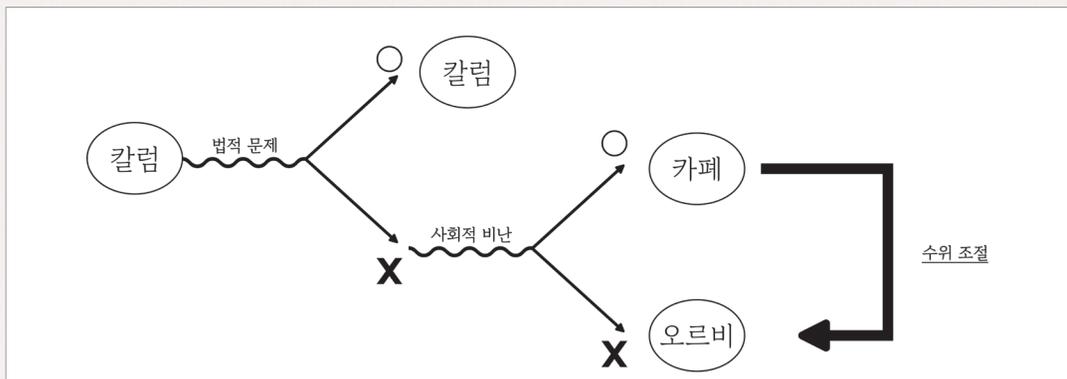
이런 태도로 오르비에 글을 쓰면, 회사의 이름에 폐를 끼치는 일이 생길 듯합니다.

제 책을 출판해준 감사한 오르비에겐 홍보를 가장한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칼럼의 수위를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제 칼럼 중 그나마 정제된 버전은 오르비에 업로드하고,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칼럼은 카페에 업로드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유사하니 오르비에 올라간 내용만 봐도 충분합니다.

(수위 문제가 없는 콘텐츠는 모두 오르비에도 동일하게 업로드합니다.)



---

## 구성

### • 개념

각 이정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합니다.

각 이정표들이 주는 느낌을 해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이 책은 “A인 경우, B 해보자!” 라는 가언적 청유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A는 **이정표**, B는 **가져야 할 느낌 및 행동강령**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온갖 이상한 예시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여러분은 ‘천박한 재해석’, ‘실제사용’, ‘최종결론’만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하니깐요.

### • 훈련

개념에서 느낌을 학습했다면, 이를 훈련에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즉, 개념에서 ‘A할 때 B하자!’를 배웠다면, 훈련에선 이걸 써먹어 보는 거죠.

훈련에는 평가원 모의고사 및 수능에 실린 예문을 실어 뒀습니다.

중요한 건 이를 점진적으로 구성했다는 겁니다.

‘예시’의 학습이 완료된 독자는 ‘대비’에서 ‘예시’와 ‘대비’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지문들을 마주치게 될 거예요.

가면 갈수록 뻑뻑해지는 느낌이 들겠지만, 잘 버텨봅시다.

---

## 권고사항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건 딱히 없지만, 이 책의 저자로서 주의사항 몇 개는 전달해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꽤 중요하니 잘 읽어보십시오.

### • 가벼움

이 책은 가볍게 봐야 합니다.

친구들이랑 시답잖은 농담할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봐야 합니다.

공부의 본질, 독해력의 본질과 같은 대단한 소리는 집어치우고, 그냥 ‘저 인간이 뭘 개소리를 하나’ 정도의 태도로 보면 충분합니다.

혹시 압니까? 그렇게 읽어보다가 뭔가 건질 수도 있잖아요.

이 책은 그런 태도로 봐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책은 단순히 사실로 여겨지는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느낌을 전달하죠. 즉 방법론 자체를 다룬다는 얘깁니다.

이런 방법론을 제시하는 책을 읽을 때 주의점은 그 책에 매혹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책을 구매하신 여러분들은 이 책에 매혹될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제 책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에 전혀 문제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 있는 상태라면 제 책을 보겠습니까?

제 책을 구매하는 루트는 두 가지입니다.

대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 일부, 오르비에서 제 이상한 칼럼을 보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 저는 수서역 어딘가에서 숨어 살고, 제 개인과의 학생들 중 국어를 잘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또, 오르비에서 제 칼럼을 보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 중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저 “인마 이거 웃기네 ㅋㅋ” 하고 넘기지 비싼 돈을 들여 제 책을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책을 사서 보는 여러분들은 국어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현란한 혀 놀림으로 이런저런 팁을 제시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이에 홀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좋지 못한 태도입니다.

제가 여기서 고안한 것들은 수험판에 존재하는 수많은 방법론 중 하나일 뿐이고 그것마저도 이미 이전 세대에서 다뤘던 논의들을 쉽고 천박하게 재해석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여기에 빠지지 말고, 참고하는 정도로만 읽어보세요.

즉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은 그저 '도움 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읽어보라는 겁니다.

### • 말투와 표현 수위

책의 목적을 고려하면, 말투는 기본적으로 반말로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게다가 존댓말로 쓰면 글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져요.

두꺼우면 여러분들이 안 살 거잖아요.

더하여 독해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천박한 느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말로 썼습니다.

문제는, 반말도 반말이지만 천박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활용된 여러 예시 표현들을 보면 자극적이고 얼렁이가 없는 것도 많거든요.

이는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가볍게 느낌을 전달하는 책인데, 그 느낌을 진중하게 써버리면 제작 목적과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딱 그 정도 가볍게 킁킁 정도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났으니 꼭 가볍게 보십쇼!

만약 책을 읽다가 '저자가 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드실 경우, '아! 가볍게 읽으라 했지' 하고 편한 마음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 마치며

책을 만드는데 감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제가 쫓아내고 싶었던 분들도 있었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책을 쓸 수 있었던 건 제 힘만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생각나는 이름을 몇 꼽아보자면.....

많은 생각의 원천이 되어준 H, 집필의 희생양이 된 **창섭**, **해성**, 검수를 맡아준 **준용**, **지선**, **주형**, **승혁**, **성연**, **지성**, **유영** 시각 장애인용 오디오 녹음을 맡아준 **지민**, 천박한 제 생각을 펼칠 출판 기회를 준 오르비 분들, 제 이상한 소리를 받아주며 교재 완성을 도와주신 **오르비** 전온유 담당자님, 인용 및 디자인 활용을 허가해주신 **김해마루** 판사님, 귀찮으실 법한 질문에도 흔쾌히 자문을 맡아주시고, 이론 사용을 허가해주신 **변종필** 교수님, **김도현** 교수님, 그리고 제가 교육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해황** 선생님, **박재복** 선생님, **이재빈**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로 **지민**, **서윤**, **인우**, **승규**, **담**, **민성**, **조은**, **나운**, **주성**, **현진** 등.. 많이 있네요.

특히 **이해황** 선생님께서 교재 내용의 인용을 허가해주셔서 독자 분들께 편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II. 궁극기

### 들어가며

이 단원은 지금부터 할 모든 논의들을 한 단원으로 요약한 것이다.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이해한다면 다른 내용들은 보지 않아도 좋다.

권장하는 학습 방법은 이 내용을 인터넷 강의와 같이 수강하는 것이다.

1강에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는 내용을 올려줬으니, 이 부분을 학습할 때 꼭 참고하길 바란다.

### OT

아래 문장을 진심으로 읽어보자. 이해하겠다는 태도로. 천천히.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22110409]

만약 당신이 이 문장을 처음 본 경우에 이 문장이 완전히 이해됐다고 생각하면, 이 책을 덮자. 당신에게 필요  
가 없을 듯하다.<sup>2</sup>

그렇지 않다면, 이 책을 마저 읽어보면 된다.

2. 그렇다고 환불은 하지 말자.

## 예시

예시의 이정표에는 ‘가령’, ‘예를 들어’ 등이 있다.

우리가 글을 읽다가 예시의 이정표를 만났다고 생각해보자.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①일단 멈추는 것이다.

이때 멈추는 것은 정말 물리적으로 멈추는 것이다.

글을 읽다가 0.5초~1초 정도 “흡!” 하고 의도적인 정지를 한다고 이해해도 좋다.

그 다음 ②뒷부분을 앞부분에 꼬라박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읽는 것이다.

추상적인 설명은 지루해질 테니 다음과 같은 예시를 보자.

하지만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업힘의 체험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을 때 내가 누군가의 손을 만지는 동시에 나의 손 역시 누군가에 의해 만져진다.

[24061217]

하지만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업힘의 체험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을 때 내가 누군가의 손을 만지는 동시에 나의 손 역시 누군가에 의해 만져진다.

[24061217]

일단 멈추는 것은 당신의 시야 범위가 좁든 넓든 상관없이, ‘예를 들어’를 보자마자 의도적으로 정지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여기서 정지를 하고 나서...

하지만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업힘의 체험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을 때 내가 누군가의 손을 만지는 동시에 나의 손 역시 누군가에 의해 만져진다.

[24061217]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내용은 앞부분에 꼬라박히는 내용이다’라고 되뇌며 읽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다음과 같은 독해가 가능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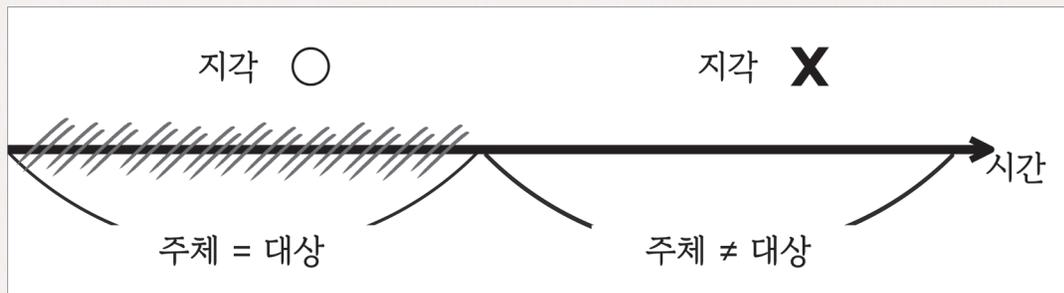
하지만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업힘의 체험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을 때 주체[내]가 대상[누군가의 손]을 만지는 동시에 대상[나의 손] 역시 주체[누군가]에 의해 만져진다.

[24061217]

### 생각 하나

우선 ‘예를 들어’ 앞부분의 내용에 따르면,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난다.

이는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기 전에 즉, 둘이 동일할 때 ‘지각’이 나타나는 것이다.



### 생각 둘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부분을 보자.

‘예를 들어’ 앞부분의 ‘주체’는 뒷부분의 ‘나(내)’, ‘누군가’이다.

‘예를 들어’ 앞부분의 ‘대상’은 뒷부분의 ‘나의 손’, ‘누군가의 손’이다.

주체	나(내), 누군가
대상	나의 손, 누군가의 손

생각 둘의 내용은 생각 하나의 내용과 연결되지 않는가?

그렇다 생각 둘의 내용은 결국 생각 하나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말이다.

주체를 기준으로 하면, 주체는 내가 될 수도,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sup>3</sup>

대상을 기준으로 하면, 대상은 나의 손이 될 수도 누군가의 손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이건 무엇인가?

결국 주체와 대상이 사실상 같다는 말 아닌가?

이는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그렇다면, 뒷부분의 ‘다른 사람의 손을 맞잡을 때’는 앞부분의 ‘지각’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설명을 보고 무난하게 이해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 교재에서 굳이 예시를 공부하지 않아도 좋다.**

---

##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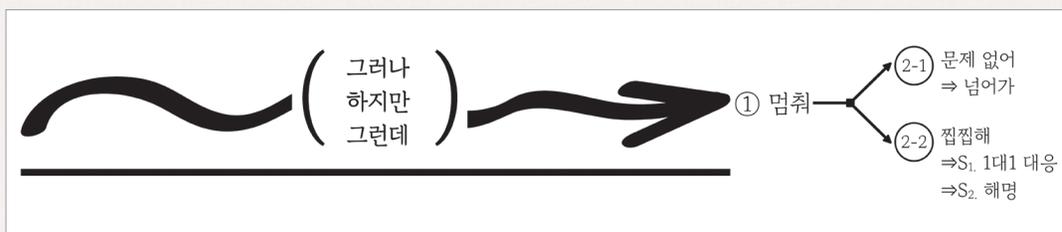
예시의 이정표에는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반면(에)’ 등이 있다.

우리가 글을 읽다가 대비의 이정표를 만났다고 생각해보자.

주의할 것이 있다면, 이는 예시와의 느낌과 조금 다르다는 것이다.

예시의 경우엔 이정표를 인식하자마자 그 즉시 멈추는 것을 권장했지만,

대비의 경우 이정표의 존재만 인식한 다음 끝까지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문장을 끝까지 읽고 나서의 느낌이 중요하다.

---

3. 이때, '나의 손'은 '나'의 일부로 굳이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의 손도 마찬가지다.

### ·CASE1· 별 문제 없을 때

대비의 이정표가 있어도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내용이 엄청나게 쉬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독자가 이에 어느 정도 배경지식이 있거나, 그날따라 유독 컨디션이 좋거나...

상황은 다양하다.

어떤 상황이든 잘 읽힌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넘어가면 된다. 굳이 와서 뭘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

창섭이는 대머리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있다.

이 문장을 봤을 때, 이상한가?

아니다. 오히려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직관 속에는 ‘대머리는 여자친구를 만들기 쉽지 않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번에 읽어도 별 문제가 없을 때는 굳이 뭘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

### ·CASE2· 찝찝할 때

문제는 문장을 읽었을 때, 한 번에 뇌리에 박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 문장을 보자.

그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22111013]

이 문장들이 이해가 되는가?

이해는 될 것이다. 훌륭한 수험생이라면 이 지문을 너털너털해질 때까지 분석을 했을 테니까.

그러나 처음 봤을 때 이 문장들을 이해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간혹 ‘문맥이 주어진다면 가능하다’라는 소리를 하는 작자들을 위해서 앞의 문맥도 첨가해주겠다.

[앞부분]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 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앞의 문맥을 첨가해 줘도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뻑뻑한 게 정상이다.<sup>4</sup>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1 일대일 대응**

처음 읽는 문장에 대비의 이정표가 있고, 이 문장이 한 번에 소화가 안 된다면, 앞부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다음 이정표를 기준으로 그 앞과 뒤를 일대일 대응시키면 된다.

여기서 일대일 대응이란 내용 향을 말 그대로 일대일로 대응시켜 보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22111013]

여기서 한번 해보자.

‘반면’을 기준으로 내용 향을 일대일 대응 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물이 나온다.

그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22111013]

4. 만약 당신이 이 문장을 처음 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당신이 경제 관련 지식이 전문하다면, 당신은 굳이 이 책을 보지 않아도 된다.

### 생각 하나

우선 ‘적자’와 관련된 얘기는 이 색으로 처리된다.

‘반면’ 앞부분의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음’과 ‘반면’ 뒷부분의 ‘적자 상태가 지속’이 일대일 대응하는 것이다.

둘의 내용이 ‘적자’ 여부로 나누어지니까 일대일로 대응시킬 수 있다.

여기서 언어적 직관이 엄청나게 좋은 독자는 ‘일반적으로 적자는 허용하고 금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위 및 권한이 꽤나 대단함을 느끼고 갈 수 있다.

### 생각 둘

‘공급’과 관련된 얘기는 이 색으로 처리된다.

‘반면’ 앞부분의 ‘국제유동성 공급이 중단’과 ‘반면’ 뒷부분의 ‘달러화가 과잉 공급’이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이다.

둘의 내용이 ‘공급’ 여부로 나뉘지니까 일대일로 대응시킬 수 있다.

여기서 ‘공급’의 목적물로서 앞부분은 ‘국제 유동성’을, 뒷부분은 ‘달러화’를 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독자는 ‘국제 유동성’과 ‘달러화’가 모종의 관련이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 생각 셋

마지막 단계에 대한 얘기는 이 색으로 처리된다.

‘반면’의 앞과 뒤는 모두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반면’ 앞부분의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과 ‘반면’ 뒷부분의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가 일대일 대응한다.

더하여, 두 부분 모두 ‘될 것’이라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일대일 대응시킬 수 있다.

여기서 앞 문맥을 끌고 온 독자는 ‘아 둘 다 어느 길로 가든 망하는 거고 이게 구조적 모순이구나~’ 라고 반응할 수 있다.

#### [앞부분]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 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이런 식으로 대비의 이정표가 담긴 문장을 한 번 읽었을 때 느낌이 안 올 경우, 앞으로 돌아가서 일대일 대응을 시도해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문장이 다 일대일 대응되게 서술되어 있지 않다.

그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 2 해명

해명은 필자가 사용한 이정표의 **존재 의의**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다.

쉽게 말해, 독자는 ‘**왜 하필 많고 많은 자리 중에 <그러나>가 여기 처박히는 거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뒤, 그 앞과 뒤를 보며 답을 찾아내면 된다.

다음 문장을 보자.

행정 당국은 지목(地目) 변경은 해 두었지만 서류상으로는 그 모든 가옥들이 무허가 주택이나 다름없었으며, 따라서 집들의 매매는 권리금에 다름이 아니었다.

[26112730]

이 문장은 한 번에 읽어도 된 소린지 모르겠고, 다시 돌아와서 일대일 대응을 시도해 봐도 먹히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독자는 잠깐 멈춰 서서 ‘**왜 하필 <-지만>이 여기 쓰인 거지?**’를 고민해 보면 된다.

그렇게 고민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행정 당국은 지목(地目) 변경은 해 두었지만 서류상으로는 그 모든 가옥들이 무허가 주택이나 다름 없었으며, 따라서 집들의 매매는 권리금에 다름이 아니었다.

[26112730]

<-지만>이 상반의 느낌을 주는 것은 자명하다.

필자가 굳이 이를 여기다 써놨으니 앞과 뒤가 뭔가 다른 것이 올 것이다.

그렇게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다보면, 독자는 ‘지목 변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뭔지 몰라도, ‘**지목 변경**’이 ‘**허가**’ 쪽에 가까운 개념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이 설명을 보고 무난하게 이해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 교재에서 굳이 대비를 공부하지 않아도 좋다.